



노후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

최장훈 연구위원

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도 소득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 2015년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(자영업소득 포함)의 비율은 50~59세 79%에서 60~69세에는 62%로 감소하였으나 60세 이후에도 다른 소득원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하지만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는 60세 이전보다 더 높게 나타남. 따라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후에 대한 근로 환경과 소득 기준이 개선되고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

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
- 통계청(2017)¹⁾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6년 30.7%로 전년보다 0.1%p 증가함
- 55~79세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소득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58.3%로 가장 많음

■ 2015년 한국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 가구 근로소득(자영업소득 포함)²⁾은 50~59세에서보다 60~69세에 감소하였으나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%로 여전히 가장 큰 소득원임

- 근로소득 다음으로 금융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은 60세 이후에 크게 증가함
- 비금융소득은 60세 전후로 큰 차이는 없으나 60세 이후 약간 증가함
- 사회보험소득은 공적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지급이 대부분 60세 이후에 시작되므로 사회보험소득은 60세 이후 크게 증가함
-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대부분 증가하지만 개인연금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은 은퇴 전 39만 원에서 은퇴 후 3만 원으로 크게 감소함

1) 2017 고령자 통계

2) 가구 근로소득이므로 가구원들의 근로소득(자영업소득 포함)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함

- 저축성 보험은 은퇴 전에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〈표 1〉 60세 전후 가구 소득변화와 소득자원 비율

(단위: 만 원/연, %)

구분	금액		총소득 대비 비율	
	50~59세	60~69세	50~59세	60~69세
근로소득	5,322	3,896	78.8	61.9
금융소득*	739	1,195	10.9	19.0
비금융소득**	472	520	7.0	8.3
사회보험소득	123	484	1.8	7.7
이전소득	63	191	0.9	3.0
저축성 보험(개인연금 포함)	39	3	0.6	0.0
총소득	6,758	6,289	100.0	100.0

주: 2015년 기준 현가임

* 금융소득은 금융기관 이자/투자소득, 비금융기관 이자수입, 주식/채권 매매차익, 배당금 등을 의미함

** 비금융소득은 부동산 임대료, 매매차익, 권리금 등을 의미함

자료: 한국노동패널데이터 분석 결과(2006년 50~59세, 2015년 60~69세)

■ 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불평등도와 근로환경은 60세 이후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

-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로 비교하고 지니계수 계산 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³⁾
- 금융소득, 사회보험소득, 그리고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지니계수가 낮아지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가 높아지므로 총소득의 불평등도도 60세 이후가 60세 이전보다 더 높아짐(〈표 2〉 참조)
 - 저축성 보험의 지니계수가 1로 나타나는 것은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매우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
- 은퇴 후 종사하는 직종을 보면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, 어, 축산업과 단순노무 직종이 대다수임 (〈그림 1〉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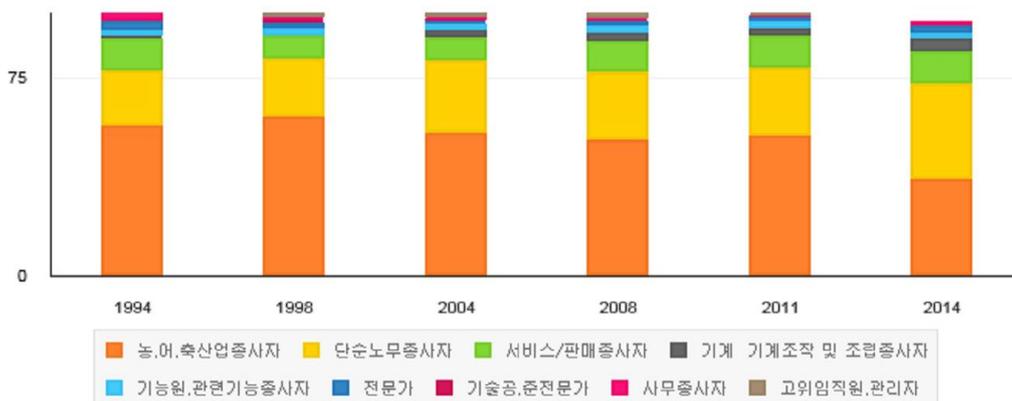
3) 60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가 많아져서 이 가구들을 포함하면 지니계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함

〈표 2〉 60세 전후 가구 소득 불평등도

구분	지니계수	
	50~59세	60~69세
근로소득	0.33	0.41
금융소득	0.86	0.68
비금융소득	0.95	0.96
사회보험소득	0.95	0.70
이전소득	0.87	0.65
저축성 보험(개인연금 포함)	0.99	1.00
총소득	0.36	0.40

주: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한 평등이고 1이면 완전한 불평등임
 자료: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분석결과(2006년 50~59세, 2015년 60~69세)

〈그림 1〉 취업노인의 종사직종



자료: 보건복지부, 「노인실태조사: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」

-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에도 가구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근로소득에 대한 불평등도가 노후에 더 높아지므로 노후의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
- 노후에도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공·사 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 - 은퇴 후 가구의 총소득에서 사회보험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.7%에 불과하고 저축성 보험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(〈표 1〉 참조)
 - 반면, OECD 국가 노인층의 소득에서 사회보험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60%에 달함⁴⁾

4) Pensions at a Glance(2013)

- 또한 고령자 가구의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므로 은퇴 후에 부익부-빈익빈 현상이 심화될다고 볼 수 있음
- 따라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소득 기준이 개선되고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**kiri**